

세계정당연대의 환상적인 몸짓으로 당신을 코대항하리.

임핑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 우천시 9시 이후 출발요금정신세 실시
- 예약 : www.hpdynasty.co.kr 080-320-7700



‘2009년엔 내가 불박이 4번 타자’ KIA 타이거즈의 ‘차세대 거포’ 나지완(사진)이 4번 탈환을 위한 야심찬 도전에 나선다. 나지완은 지난 3월29일 삼성과의 개막전에서 ‘호랑이 군단’ 4번 타자로 당당히 프로세계에 첫 발을 내딛으며 팬들의 주목을 한 몸에 받았다. 하지만 방망이의 침묵으로 개막 채 한 달도 안돼 2군으로 추락하면서 프로의 높은 벽을 실감했다.

매일 티배팅 600개씩 강훈

‘절치부심’ 이를 악문 나지완은 6월29일 프로 데뷔 첫 홈런을 뽑아내며 자존심 회복에 나섰다. 나지완은 지난 3월29일 삼성과의 개막전에서 ‘호랑이 군단’ 4번 타자로 당당히 프로세계에 첫 발을 내딛으며 팬들의 주목을 한 몸에 받았다. 하지만 방망이의 침묵으로 개막 채 한 달도 안돼 2군으로 추락하면서 프로의 높은 벽을 실감했다.

내년 4번 타자 욕심낼 뿐이고... 힘든 훈련에도 즐거울 뿐이고...

■ KIA 나지완 포항 훈련 캠프

빠질 수 없는 일과다. 김밥을 싸들고 경주 남산을 찾는 것도 2009시즌을 위한 희망 프로젝트의 하나다. 실 틈 없이 이어지는 강행군에도 나지완은 “훈련이 즐겁다”라고 말한다. 목표는 ‘유망주’ 꼬리표 떼기다. 유망주라는 수식어 자리에 KIA 4번 타자라는 말을 대신하고 싶다. 강도 높은 훈련에 체중이 줄어 몸이 한결 가벼워진데다 타고난 배팅 능력과 훈련을 통해 정밀함을 보완하면서 좋은 성적을 기대하고 있다. 나지완은 올 한해 혹독했던 프로세계에서 시행착

나지완을 가다듬고 있는 황병일 코치는 “차세대 4번타자 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한다. 하나를 알려주면 둘을 아는 재자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 황 코치는 파워와 프로정신을 겸비한 재목 나지완의 내년 시즌을 낙관하고 있다. “올 시즌 프로무대에 적응하느라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타고난 배팅 능력과 훈련을 통해 정밀함을 보완하면서 좋은 성적을 기대하고 있다.” 나지완은 올 한해 혹독했던 프로세계에서 시행착

오도 겪었지만 아픈 만큼 성장했고, 또 자신의 가능성을 봤다고 평가한다. 무엇보다 자신처럼 힘든 2008시즌을 보낸 선배 최희섭이 자신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면서 큰 힘을 얻고 있다. 나지완은 최희섭이 들려주는 바리그와 한국 야구의 경험을 통해 머릿속에서 늘 그라운드 위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고 있다.

“프로 첫해 아픈만큼 성장”

내년 시즌 나지완이 해야 할 일이 많다. 올 시즌 팀이 훈련 가뭄으로 자존심을 구긴 만큼 ‘훈련 군단’ 재건을 위한 어깨가 무겁다. 또 ‘우타 거포’에 대한 팬들의 욕망을 채워야 한다. 특히 경쟁자이자 동갑내기 친구 김주형이 22일 상무에 입단하면서 잠시 팀을 떠난 만큼 이에 대한 책임감이 막중하다. 23일 포항 캠프를 정리한 나지완은 26일부터 29일까지 최희섭과 설악산에 올라 2009년을 설계하게 된다. 1월 6일 팀의 합동훈련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모교인 신일고를 찾아 방망이를 가다듬을 예정이다. 불날의 녹색 그라운드를 기다리는 나지완의 마음은 벌써 2009년에 다다라 있다. /포항=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BO 총재 추대된 유영구이사장 사의

정치권 압력 끝내 못버터

프로야구 차기 총재로 추대된 유영구(62) 명지의료재단 이사장이 끝내 정치권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 사퇴함에 따라 ‘자율 총재’ 선출이라는 사장단의 의지도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로 추대된 유영구(62) 명지의료재단 이사장이 이사회 개회를 하루 앞두고 결국 자신 사퇴했다.

유영구 이사장의 측근은 “유 이사장께서 프로야구는 정부와 관계도 중요한데 마찰까지 빚으며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쯤에서 접겠다. 사장단이 더 좋은 분을 뽑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해왔다. 지난 16일 사장단 조찬 간담회에서 후임 총재로 추대됐던 유영구 이사장이 6일만에 고사의사를 밝힘에 따라 KBO 총재 인선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프로야구와 오랜 인연을 맺었던 유영구 이사장은 구단 사장들로부터 추대를 받았지만 결국 전방위적으로 밀려온 정치권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셈이 됐다. 프로야구는 8개 구단이 KBO라는 사단법인을 설립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출범 당시부터 정치권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신상우 총재까지 역대 10명의 총재 중 1998년 구단주 출신으로 프로야구 수장에 오른 박용오 총재만이 ‘자율 총재’였고 나머지 9명은 모두 낙하산 인사였다. /연합뉴스

요미우리 하라 감독 이승엽 주전서 제외

최악의 시즌을 보낸 이승엽(32)이 내년 일본프로야구 요미우리 라이온즈 주전에서 제외돼 스프링캠프부터 치열한 생존 경쟁을 치를 전망이다.

일본 스포츠전문지 ‘스포츠히어로’는 22일 인터넷판에서 미국 하와이 우승 여행을 마친 하라 다쓰로리 요미우리 감독이 내년 시즌 불박이 주전으로 아베 신노스케(포수), 오가사와라 미치히로(3루수), 알렉스 라미레스(좌익수) 등 세 명만을 지명했다고 전했다.

차기 요미우리 감독감이라는 다카하시 요시노부(우익수)와 이승엽 등 올해 부진했던 간판선수들도 모두 서바이벌 경쟁으로 내몰렸다는 뜻이다. 7년 만에 일본시리즈 정상 탈환을 선언한 하라 감독은 신인과 베테랑의 무한 경쟁을 통해 전력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미국프로풋볼(NFL)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하인스 워드(86번)가 22일(한국시간) 테네시주 내슈빌 LP 필드에서 벌어진 테네시 타이탄스와 방문경기에서 터치다운을 성공시킨 후 환호하고 있다. 팀은 14-31로 패했다. /연합뉴스

워드 7번째 터치다운

미국프로풋볼(NFL)에서 활약 중인 한국계 하인스 워드(32·피츠버그 스틸러스)가 시즌 7번째 터치다운을 기록했다.

워드는 22일(한국시간) 테네시주 내슈빌 LP 필드에서 벌어진 정규시즌 15주차 테네시 타이탄스와 방문경기에서 7-10으로 뒤진 3쿼터 시작 5분19초 만에 쿼터백 벤 로슬러버거의 21야드짜리 패스를 받아 타이탄스 골문을 뚫고 터치다운을 찍었다.

그는 지난 1일 뉴잉글랜드 패트리엇스에서 시즌 6호를 찍은 뒤 세 경기 만에 터치다운을 추가했다.

와이드리시버 워드는 이날 7번 패스를 받아 109야드를 전진했고 시즌 973야드를 기록, 4년 만에 1천야드 돌파를 눈앞에 뒀다.

그러나 피츠버그는 14-17로 뒤진 4쿼터에 무려 14점이나 헌납, 14-31로 패해 11승4패로 아메리칸콘퍼런스(AFC) 플레이오프 2번 시드에 만족해야 했다. 이날 승리로 13승2패를 거둔 타이탄스가 AFC 최고 승률을 올려 6강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받았다. /연합뉴스

“역대 가장 성공한 해외파 축구선수는 차범근”

월간지 ‘베스트일레븐’ 설문

축구팬들은 역대 해외에서 뛰 한국 축구 선수 중 가장 성공한 사례로 독일 분데스리가를 호령했던 차범근 수위 삼성 감독을 꼽는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축구월간지 베스트일레븐이 미디어 다음과 함께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 ‘역대 주요 해외파 중 가장 성공한 케이스?’이라는 주제의 설문조사에서 총 2천995명의 응답자 중 56.8%에 해당하는 1천700명이 차범근 감독에게 표를 던졌다.

현재 ‘한국축구 아이콘’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은 1천42명(34.8%)의 선택을 받아 차 감독에 대한 축구팬의 지지는 미치지 못했다. 베스트일레븐은 “차 감독이 1980년대 당시 세계 최고 리그로 평가받던 분데

스리가에서 톱클래스의 활약을 보여줘 1위로 뽑힌 것 같다”고 풀이하면서 “많은 누리꾼들은 ‘현재 박지성이 보여주는 맨유에서 활약도 대단하지만 차 감독이 이런 성과에 비하면 아직 부족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덧붙였다. 선수 시절 1978년 말부터 1989년까지 분데스리가에서 뛰면서 ‘갈색 폭격기’로 이름을 날린 차 감독은 리그 통산 308경기에서 98골을 넣었고, 프랑크푸르트와 레버쿠젠 소속으로 두 차례나 유럽축구연맹(UEFA)컵 우승을 경험했다.

프랑스 리그에 진출해 첫 시즌을 보내고 있는 박주영(AS모나코)은 49명(1.7%)의 선택을 받아 3위에 올랐다. 은퇴 직전 오스트리아에서 열광을 일으켰던 서정원이 41명(1.4%), 네덜란드 PSV에인트호벤과 잉글랜드 토트넘을 거쳐 독일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에서 활약하는 이영표가 40명(1.3%)으로부터 표를 받아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

맨유, 클럽월드컵 우승

유럽축구 챔피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가 전 세계 클럽팀의 왕중왕을 가리는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월드컵에서 출전 사상 처음으로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박지성(27·맨유)은 선발 출전해 전·후반 90분 동안 골타임으로 그라운드를 누비 승리의 디딤돌이 됐다.

2007-2008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팀 맨유는 지난 21일 오후 일본 요코하마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결승에서 후반 29분에 터진 웨인 루니(에라도르)를 1-0으로 꺾었다. 이로써 맨유는 2000년 원년 대회 이후 처음으로 우승의 기쁨을 누리며 상금 500만달러를 챙겼다.

박지성도 슈팅 대열에 합류했다. 전반 26분 오른쪽 측면을 돌파한 뒤 수비수를 따돌리고 크로스를 시도했던 박지성은 34분 테베스의 힐패스에 이은 루니의 오른발 아웃사이드 패스를 받아 오른쪽 페널티지역에서 오른발로 논스톱 슈팅을 했다. 그러나 총알 같이 날아간 공은 골키퍼 정면이었다. /연합뉴스